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www.afterschool.go.kr

방과후학교

7월호 온라인 Newsletter

발행인 : 백순근 | 편집인 : 최상근 | 편집담당 : 노하늘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01

특별기획

- 방과후학교 연구의 해외 동향 및 시사점



02

전문가 칼럼

- 협동조합을 활용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03

현장 속 방과후학교

- 희망 가득! 사랑가득! 행복한 방과후학교 실현을 위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04

초등돌봄교실 우수사례

- 3S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교실



05

함께 여는 방과후학교

-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토요방과후



06

한눈에 보는 방과후학교

-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07

방과후학교 소식

- KEDI 주요 활동 안내



이메일 구독 요청

매월 25일 발간되는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nosky1@kedi.re.kr



방과후학교 연구의 해외 동향 및 시사점¹⁾

●● 성균관대학교 | 배 상 훈



비록 나라마다 명칭은 달라도 방과후 교육활동은 하나의 새로운 교육현상이자 제도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영국의 extended education, 독일과 스위스의 all day schools, 미국의 out-of-school time activities, 스웨덴의 leisure-time

center/school-age educare center 등이 그것이며,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도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하여 어떤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²⁾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방과후학교 연구의 해외 동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교육 제도로써 가지는 특징과 역할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학생, 지역 주민 등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교육적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하 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자체의 제도적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비록 방과후학교가 공교육(Public education)과 달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교육 제도로써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반증한다.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사교육(Shadow educ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방과후학

교를 사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및 사교육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방과후학교가 가지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실천적 측면에서 또는 교육 연구의 관점에서 방과후학교는 독립적인 영역이나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분석은 방과후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방과후학교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사회적 신분을 재생산하기 위한 통로(socioeconomic reproduction strategies)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독일의 대표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인 온종일 학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재생산하는데 유리한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을 전수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교육적 관점에서 방과후학교가 정규학교 또는 정규 교육과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적 기능(예: 아동의 사회적 발달,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방과후학교가 점차 정규 학교처럼 운영되는 경향(Schoolification)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상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 연구가 주로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둘째, 방과후학교 참여의 교육적 성과를 실증 분석하는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주로 양적 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며,

1) 이 글은 2014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 '방과후학교'는 주로 한국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보편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표현을 활용하되, 글의 맥락에 따라 방과후학교와 상호 교차적으로 쓰기로 한다. 해외 학계에서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일하여 Extended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방과후학교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방과후학교 참여의 교육적 성과를 규명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연구 동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방과후학교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적 소외 계층에 대하여 추가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며,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동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과후학교 참여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분권화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어 방과후학교 또한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분석 연구는 대부분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예: LA's BEST 프로그램 평가). 학생 수준에서 광범위한 종단 자료를 구축하고,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횡단 및 종단 연구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참여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 효과를 크게 학업성과(academic outcomes), 사회적, 정서적 발달(social/emotional outcomes), 예방효과(prevention outcomes), 및 건강과 복지 효과(health and wellness outcomes)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국내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되는 해외 동향의 하나를 소개하면, 지역기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아동의 교육적 성취와 생애 성공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과 맥락이 중요하고, 해당 지역에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Harlem Children's Zone 연구, 영국의 Extended schools 프로젝트 등이 좋은 사례이며, 학교를 지역적 맥락(a locally contextualized view of the school)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자들은 학교의 역할은 부모교육(better

parenting), 학생의 상급학교 이동(transition within the school system)에 대한 지원,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정서적 지지, 언어 및 소통 역량의 강화 등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방과후학교의 목표로 지역사회 학교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의 연원을 지역사회학교 운동에 두고 있는 견해도 있어 이러한 관점이 전혀 생소한 것만은 아니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방과후학교 연구에 대한 해외 동향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방과후학교의 개념과 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새로운 교육현상이자 제도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방과후학교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교육 및 사교육과 비교의 관점에서 교육내용과 제도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국내에서도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교육적 성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참여의 성과를 학업 성취 및 사교육비 경감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의 정서적 발달, 신체적 성장,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한 성과로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성과 분석을 위한 개념 모형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앞으로 방과후학교 연구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방과후 교육활동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확대된 역할을 규명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기대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성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호작용,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 지역주민의 문화적, 심리적 변화 등을 살펴보는 과정 평가(process evaluation)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연구가 요청된다. 방과후학교는 실천에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러한 교육적 실천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분야 연구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선도적 노력과 역할이 기대된다.



협동조합을 활용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

•• 전주교육대학교 | 정 영 식



농 산어촌 지역은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여, 농산어촌 학교에서 매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 역시 학교장의 운영 방침이 변경되거나 학

부모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차기년도에 재고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 예로 전라북도 진안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내 아이들은 마을에서 키운다’는 모토 아래,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와 놀거리, 배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인 ‘마을학교’를 설립하여, 지역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 돌봄 강사들은 대부분 진안군 내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으로서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와 같이 돌보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을 활용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전체를 협동조합에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위탁 기관 간에 공문이 직접 수발되어야 한다. 현재는 담당 교원이 교육지원청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협동조합에 전달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황 파악과 관련된 단순한 공문 수발은 교육지원청과 협동조합 간에 직접 이루어진다면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 업무의 증가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를 운영해야 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이 방과후학교나 초등돌봄교실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의 경우 아무런 수당이나 혜택도 없이 업무만 가중되어 방과후학교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다른 업무의 부장을 맡고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을 겸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부장교사가 별도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산어촌의 소규모 협동조합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농산어촌의 협동조합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적 자립도 역시 매우 영세한 편이다. 또한, 방과후학교나 초등돌봄교실은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 정책에 더 가까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시도교육청 역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여 안내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영세한 농산어촌 협동조합의 경우 영세한 재정으로 인해 안전에 자칫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모의 훈련이나 관련 교재,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전 교육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담당 강사와 교사, 학생들이 안전 교육을 체득하여 생활화할 수 있어야 한다.



“희망가득! 사랑가득! 행복한 방과후학교” 실현을 위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방과후교육전문가 | 신 미 정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군포시와 의왕시에 소재하는 총71개(초등39개, 중등19개, 고등13개)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신도시형의 학교와 도시와 전원의 특성이 복합된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에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사업들도 수행해 왔지만 각급 학교의 특성에 가장 알맞는 지원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및 타 부처 공모 사업 진행

- ▶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꿈누리 놀이조작단” (예산 13,440천원)
 -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통한 놀이마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 “청소년 언어버튼 ON”(예산 2,000천원)
 - 청소년 언어습관 및 실태조사, 언어관련 캠페인 실시
- ▶ 경기도 공모사업(오색빛깔 다문화) “느낌 나누미” (예산 12,850천원)
 - 나라별 가족신문/영상만들기, 여름캠프, 문화원관람, 지역 축제, 다문화 홍보 등
- ▶ 경기 문화재단 공모사업 “청소년 음악 축제” (예산 20,000천원)
 - 한국 전통음악과 클래식의 합동공연을 통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
- ▶ 수련관 연계사업
 - “멘토, 멘티 DREAM WE” : 멘토와의 만남, 진로상담
 - “우리는 뉴스 리더” : 사전 여론조사, 스터디, 모의토론, 포럼참여, 활동보고서 작성
- ▶ 청소년문화의집 연계사업
 - “드림 어드벤처” : 진로체험, 진로발달검사 및 상담
 - “樂 - KIN 청소년농구대회” : 3:3농구대회 개최
- ▶ 제일모직(주) 사회공헌 사업 지원
 -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지자체 및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

- ▶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역 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소질 계발과 지역 특성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별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기관연계 프로그램(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성장발달 촉진 및 뉴스포츠”운영
 - 지역 대학 주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활용
- ▶ 군포시청/의왕시청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강사비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지역기관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학교, 지역 기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고 만족해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학교는 학교대로, 기관은 기관의 실정과 역할만 고집하여 센터의 중간역할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시설 부족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먼저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기관과 연계 한 타 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이 확보되니, 학교와 인근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점점 확대 되고 확산 되어 현재는 허브역할을 했던 지원센터 없이도 학교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연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속 발전을 위한 제언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의 연장선이자 심화 보충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또 하나의 교육의 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방과후학교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내용 파악, 사업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사업 운영 시 효율적 운영 방법들, (즉 어떤 것들은 사업간 연계되어 운영되거나 어떤 것은 차별화되어 운영되어야 함) 문화예술과 특기적성과의 차이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대두, 우수사례 공유, 노하우 공유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방과후학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꼭 필요하고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인 법도 따라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사진



▲ 놀이조작단 프로그램



▲ 청소년 축제 운영



▲ 오색빛깔 다문화 예절체험



▲ 청소년 농구 대회



▲ 제일모직 사회공헌(진로체험)



▲ 멘토, 멘티 DREAM WE



3S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교실

● 경기 보개초등학교 교사 | 김 형 진



“우리 학교가 돌봄 안전 우수 사례라고요?”

안성교육지원청 돌봄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돌봄교실의 안전에 관련하여 보개초의 활동사례를 정리하여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돌봄교실을 담당하여 왔지만 우리 학교의 돌봄이 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한 우수 사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우리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인 돌봄교실의 활동 모습과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렇게 뉴스레터에까지 돌봄교실활동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성시에서 차로 10여분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소규모 학교로 주변 자연 환경은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등하교나 문화적 체험 시설과 경험 기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 앞의 도로를 지나다니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단 3대뿐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9년에는 3학급 전교생 27명으로 폐교 대상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모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폐교를 막고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몇 년 전부터는 6학급이 유지되었고 올해에는 전교생 60명이 되었습니다. 등하교가 불편하고 학교가 작다고 안성 시내의 큰 학교로 가던 아이들이 우리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교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3S 프로그램을 돌봄전담사와 함께 의논하며 실천하여 왔습니다.

3S는 세 개의 안전(Safety)을 나타내는 것으로 첫 번째 S는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입니다. 걸어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되지 않고 대부분은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였습니다. 작년 우리 학교로 부임하며 돌봄교실을 맡게 된 저는 이런 학교의 상황을 인지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학생별 귀가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관련 조사지와 안내장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30여명의 참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교사임을 밝히고 귀가 원칙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각 학생의 등하교의 방법과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돌봄전담사는 학생 개인별 하교 상황을 확인하여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저녁돌봄교실이 끝나서 밤늦게 하교하는 경우, 학생이 학교를 출발했음을 알리는 문자(SMS)를 보냈습니다.



▲ 학교버스 도우미와 승차학생 안전지도

학교버스 종사자인 안전도우미와 기사에게는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 운행을 해줄 것을 인사말과 함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귀가동의를 외의 방법으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나 보호자와의 확인전화를 통하여 하교 관련 사항을 점검한 후 학생을 귀가시켰습니다. 또한 폭력, 유괴 및 학교 생활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돌봄교실 매뉴얼이나 각종 안전 관련 기관에서 배부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 서 돌봄교실 안전교육 지도용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안전한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해 돌봄전담사의 출근부를 이용하여 돌봄교실의 안전 사항을 확인하는 란을 만들어 출근과 퇴근 과정에서 매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은 돌봄교실 관련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 주었습니다.



▲ 학생안전 관련 지도용 카드

두 번째 S는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학생들의 개인위생에 대한 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반복 교육과 함께 우리 학교 보건교사를 강사로 활용한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연수를 통해 돌봄교실 관련 인원의 지도능력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루 3번 이상 손 씻기, 이 닦기를 학기별로 1주일 건강 주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점검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응급처치 동의를 받았고 돌봄교실 담당교사, 전담사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연 2회 총 2시간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식을 실시한 작년 저녁돌봄교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조리자의 건강과 조리환경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특별한 질병 발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S는 정서적 안정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바른 인성을 키이기 위해 우리 학교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들과 실계천 산책하기, 식물 관찰하기 및 압화 만들기 등 인성체험활동을 계절에 맞게 실시하였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돌봄전담사님의 미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미술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 돌봄교실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벼화분 재배, 고무마 가꾸기 등을 통해 돌봄교실 참여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돌봄교실이 각 학생들의 활동계획을 점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과후 학생활동과 휴식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돌봄활동들이 특별하다거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돌봄 외의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참여학생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방과후에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담당교사와 돌봄전담사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실천한 것들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안내가 무한 반복됩니다. 마트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계속적인 안내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면 저는 소중한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3S 프로그램의 실천으로 우리 학교 돌봄교실은 조금 더 안전하고 학생들은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 보건교사 활용 심폐소생술 연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토요방과후

● 세종국제고등학교 2학년 | 이예지



세종국제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 개교하여 아직 학생 수가 200명 정도인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방과후 프로그램으로 1인 2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 2기란,

모든 학생이 음악과 체육을 한 종목씩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는 가야금이나 해금, 사물놀이와 같은 국악기부터 드럼이나 기타, 작곡, 보컬 등이 개설되었고, 체육에는 요가, 축구, 골프, 탁구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들이 학교에서 지정해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요청한 수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도 저는 가야금과 요가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쉽게 접해보지도 못했고 국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야금을 선택하였는데, 가야금을 배우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양악기와는 다른 국악기의 매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악기가 평소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이 있는 서양악기가 가깝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리감 없이 국악기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요가는 주중에 운동시간도 부족하고 활동량 없이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가를 통해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굳어버린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어서 요가를 한 후에는 딱딱했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작 별로 어떤 점에서 이 동작이 좋은 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것인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고등학생’ 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항상 공부만 하고 다른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기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공부만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운동과 음악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건강하게 고등학교시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공부만 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소질도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다양한 개성을 지닌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것처럼 다른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만 하느라 지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것이 학생들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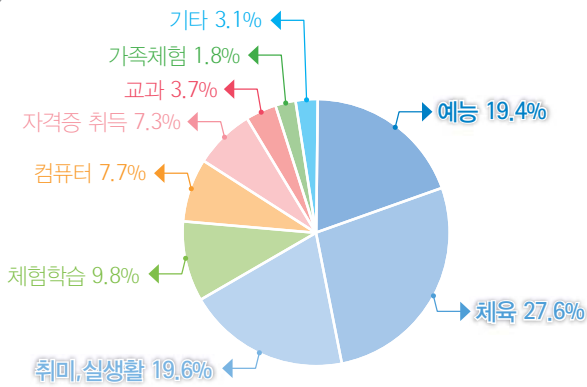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토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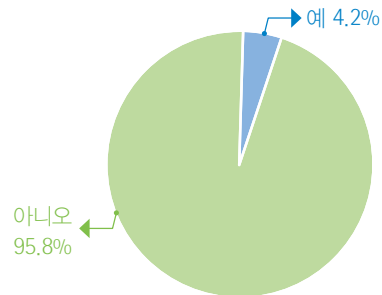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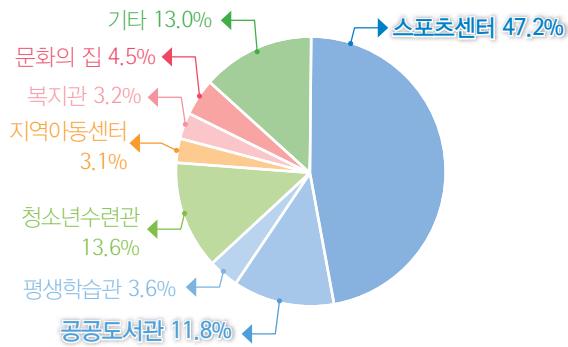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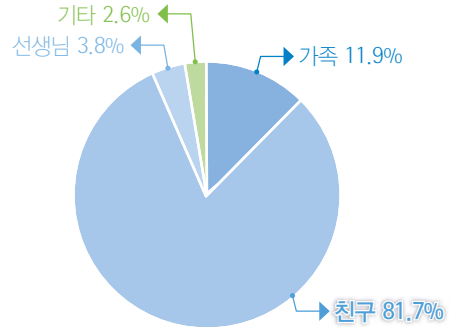
가족참여 프로그램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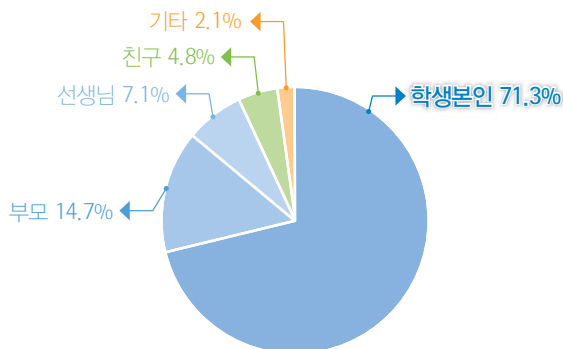
참여하고 싶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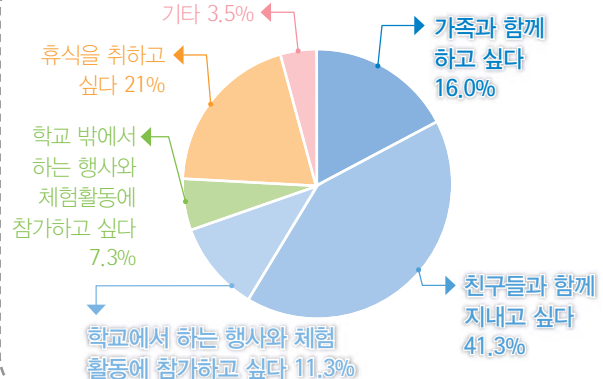
토요프로그램 참여 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토요프로그램 참여의견 반영 주체



토요일에 가장 하고 싶은 것





• 2014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관계관(자)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4.7.10.(목) 14:00 ~ 7.11.(금) 13:00
- 장소 : The-K 서울호텔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사업 내실화 방안 모색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담당 장학관(사), 한국교육개발원이 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관계관(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일차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의 2014년 업무보고,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발표와 특강(방과후 초등 돌봄 운영 방안), 2014년도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사업 정책 방향 안내(교육부), 방과후학교 개선 방안,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간 분임토의가 진행되었다.

2일차에는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재복 전북교육청 장학관이 전일 진행되었던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토의를 진행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및 시사점 발표(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설명회,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 초등돌봄교실 행정 운영 안내 등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워크숍 자료집은 방과후학교 포털사이트(www.afterschoo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PDF 파일형식의 계간지로 발행되던 뉴스레터가 이번 2014 7월호부터 월간지의 웹진형식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우수사례와 관련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칼럼(인터뷰), 특별기획(정책 및 연구) 등 다채롭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발행일 : 매월 25일
- 내용 구성 : 우수사례,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칼럼(인터뷰), 특별기획
- 발행 방법 : 이메일 발송 및 방과후학교 포털사이트 탑재

매월 발행되는 만큼 최신의 소식들로 다양한 정보를 많은 분들께 제공할 예정이오니,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nosky1@kedi.re.kr)로 구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소식 알림

● 교육청 · 지자체 실무자 대상 부처공동 권역별 워크숍(가제)

● 일시 및 장소

- 1차 : 14.8. 6(수) 10:00 ~ 16:00 / The-K 호텔(서울)
- 2차 : 14.8.13(수) 10:00 ~ 16:00 / 리베라 호텔(대전)
- 3차 : 14.8.14(목) 10:00 ~ 16:00 / The-K 호텔(경주)

● 대상

: 시도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돌봄협의체 실무자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8월호' 원고 모집

● 모집 기간 : 2014년 8월 8일(금)까지

● 모집 분야

1) 함께 여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이용 사례
(대상 : 교사 및 강사, 학생, 학부모)

2) 명예기자 리포트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이슈 등에 대해 기사, 인터뷰, 현장 취재 등을 통해 기사 작성
(대상 : 교원, 교육기관 관계자, 학부모, 대학생(대학원생))
- 제출 및 문의 :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nosky1@kedi.re.kr, 02-3460-0686)



방과후학교 뉴스레터는 발신 전용입니다.

본 메일을 앞으로 수신하지 않으실 분은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해당 이메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 집필자의 원고 내용은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립니다.